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6. 18.(목) 12:00
(지 면) 2026. 6. 19.(금) 조간

올해 첫 폭염특보, 폭염 저감시설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

- 광주 동구 지역 열 식힘 도로, 물 안개 분사장치 등 현장 점검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(6.18.)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, 6월 19일(금) 광주광역시 동구를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한다.

먼저,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각종 행사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금남로를 방문해, 열 식힘 도로(쿨링로드)와 물 안개 분사장치(쿨링포그)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.

김용균 실장은 시민과 차량이 다니는 곳의 열을 식히기 위해 설치한 해당 시설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고,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시설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.



열 식힘 도로



물 안개 분사장치

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안부 확인을 포함한 보호 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. 특히, 광주광역시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쪽방촌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지원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고 있다.

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"올여름 첫 폭염특보 발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려되는 만큼, 정부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"라며, "또한,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역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환 (044-205-6366)



폭염 6대 행동요령



본격적인 무더위
• 폭염특보 33°C

무더위 기상상황 확인

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

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

*실내온도 26~28 유지

시원한 장소 휴식

충분한 수분섭취

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